

한빛철학특강

“동양철학에서 찾는 삶의 지혜”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 2016. 7월 ~ 12월 (총6회)
- 일 시 : 매월 마지막 목요일, 19:00~21:30
- 장 소 : 책마을 2층 시청각실
- 대 상 : 일반성인 30명
- 특강내용 및 일정

구분	운영일 (19시~)	특강 주제	내 용	접수일 (10시~)	접수 방법
7월	28일	『열자』-천하를 위하여 머리카락 한 올도 버리지 않는다	『열자』는 노자, 장자와 더불어 도가 사상가로 분류된다. 본 강의에서는 『열자』 가운데 「양주편」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양주의 사상은 흔히 위아론(爲我論)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하는 이론>이라는 뜻이다. 이에 위아론은 흔히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보이지만 양주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참되게 자신을 위할 줄 알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는 것이다.	7일(목)	인터넷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및 전화 접수 (☎ 330-4833, 4838)
8월	25일	『묵자』-나를 위하여 모두를 사랑하라	겸애(兼愛)와 절용(節用)과 정의(正義)를 내세운 그의 사상은 당대 어떤 학파보다도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다. 그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천하의 폐해가 생겨났다고 보고, <모두를 똑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되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	4일(목)	
9월	29일	『순자』 -욕망이 삶의 뿌리	순자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등과 같은 신체적 고통은 누구든 피하고자 하며, 이 피하려는 욕망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이 악하다고 보는 순자의 관점은 되돌려 사회를 추동시키는 활력소로 활용할 수 있다.	8일(목)	
10월	27일	『한비자』-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라	형벌과 법령을 좋아한 한(韓)나라 공자(公子)로 법제를 정비하고, 상벌로써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힘쓰면 나라가 잘 다스려 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비자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매우 유용하다.	6일(목)	
11월	24일	『육조단경』 -본래 청정한 마음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라는 혜능의 가르침을 담은 책 『육조단경』은 복잡한 지식을 내버리고 단순 명료하게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3일(목)	
12월	22일	『십우도』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동자가 소를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그림.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佛性)이 있는데 이 불성을 소에 비유한 것이다. 먹고 자고 욕심내고 다투는 세속에서 깨달은 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1일(목)	